

기획서 작성 방법

이 문서는 휴디프로젝트 과목에서 진행할 소프트웨어를 정의하는 기획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안내하는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기획서는 프로젝트 전 과정에서 구성원 전체가 필요 시 열람하고, 합의에 의하여 수정할 수 있어야 하므로 이 문서는 특정 문서 형식을 제시하지 않고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요소의 정의, 작성 방법, 예, 점검사항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문서의 관리는 프로젝트에서 채택된 일반적인 문서 관리 지침을 따른다)

이 문서에서 설명하는 기획서는 휴디프로젝트에서 채택한 프로세스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이 문서를 기반으로 기능 요구사항 명세(박재성 교수 작성기능 목록 참조)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작성한다. 따라서 상세한 기능 요구사항 명세는 제외하고 사용자 Needs 중심으로 기술한다. 산업 현장에서 사용되는 통상적인 문서와 비교 시, 국내의 경우 Concept 기획서에서 상위기획서, 미국지역의 경우 Concept Paper에서 PRD(Product Requirement Document)와 유사한 구성요소를 갖도록 한다. 따라서 아래에서 제시되는 각 구성요소 항목들도 일반적인 용어로 제시된 것으로 작성자의 판단에 따라 내용을 표현하기에 좀 더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용어의 변경 및 항목의 분리, 통합을 한다.

휴디 기획서의 목차는 다음을 기본으로 합니다

문서 이력 (Revision History)	2
Vision Statement/Mission Statement/Product Purpose	2
Scope/Product Principles	3
User Profile/Persona	4
Usage Scenario	5
Feature buckets (categories)/주요 기능	6
Positioning/경쟁분석 (선택사항입니다)	7

문서 이력 (Revision History)

문서가 수정되는 경우 시점, 사유 등을 중심으로 이력 관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프로젝트에서 채택된 문서 관리 프로세스가 별도의 이력 관리를 지원하는 경우 이를 따르고, 아닌 경우 문서 내에서 별도의 이력관리 항목을 마련하고 관리하도록 한다.

Vision Statement/Mission Statement/Product Purpose

달성하고자 하는 바를 기술한다.

■ 예

1960년대 H. F. Kennedy 대통령의 우주탐사에 대한 Vision

“In the next decade, send a man to the moon and back safely”

작성된 목표는 이후의 요구사항 정리에서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명확하여야 한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문제의 해결이므로 어떻게(How?) 아닌 무엇(What?)을 중심으로 기술한다.

기회 발견 및 아이디어 도출 과정에서의 진행 특성에 따라

- 기존 소프트웨어 개선의 경우
예) 검색 + 음성인식 = 손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도 검색 사용
-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기능의 개발
예) 기계번역을 이용한 자동 자막 생성을 통하여 외국어 동영상 시청
- 환경변화에 따른 새로운 사용자의 지원
예) 스마트워치에서 뉴스피드 읽기 (기술환경 변화)
예) 공인인증서가 없는 본인 인증 서비스 (규제환경 변화)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휴디프로젝트와 같이 1회성으로 진행되는 경우는 Vision Statement와 Mission Statement가 동일하

게 될 수 있다. 만약, 과목 후에도 지속적으로 개선을 진행할 계획이라면 전체 계획의 목표를 기술하도록 한다. 이 경우 문서에 단계별로 정리된 별도의 Roadmap, Release Plan 항목을 마련하도록 한다.

■ 점검

수립된 목표는 목표의 5가지 특성(SMART)을 만족하는지 점검할 수 있다.

- Specific: 좋은 -> 빠른 등으로 구체적 특성을 사용한다.
- Measurable: 빠른 -> 시간, 단계 수 등으로 측정 가능한 척도를 사용한다.
- Achievable: 기술적 구현 가능성을 고려한다
- Relevant: NEXT 설립 취지를 참조한다
- Time-based: 휴디프로젝트 기간으로 한정

Scope/Product Principles

개발에 포함되는 범위 및 원칙을 기술한다.

■ 예

앱이 구동되는 기술환경

“안드로이드폰(4.3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범위는 Positive(포함되는 범위를 기술), Negative(제외되는 범위를 기술) 방식으로 기술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Negative 방식으로 기술하는 경우가 간결하면서도 명확성을 확보하는데 용이할 수 있지만, Positive 방식으로 기술하는 경우 요구사항 정리 및 Design 과정에서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는 원칙들을 추가로 포함 할 수 있다.

예) TiVo(PVR)의 경우 다음을 기준으로 제시하였다

- It's entertainment, stupid
- It's TV, stupid

- It's video, damnit
- Everything is smooth and gentle
- No modality or deep hierarchy
- Respect the viewer's privacy
- It's a robust appliance, like a TV

■ 점검

Vision Statement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개발의 범위가 제약 조건으로 작용하는지 점검한다. 예를 들면, 목표는 “NEXT 모든 학생이 사용”으로 설정하였는데, 범위는 “안드로이드폰만 지원한다” 인 경우 Roadmap을 이용하여 단계별 목표를 분리하고, 각 단계의 목표와 일관성이 있는지 점검한다.

User Profile(persona)의 사용자들의 환경과 일치하는지 점검한다.

User Profile/Persona

사용자가 누구인지 기술한다.

■ 예

새로운 모아보기 서비스의 사용자

“카카오톡과 라인을 동시에 사용하며 평균 1일 대화 상대가 20명 이상”

사용자의 기술은 사용자의 인구통계적 특성(예, 20대 여성 서울 거주), 행위적 특성(예, 카카오톡 심하게 사용), 심리적 특성(예, 심미성을 중시) 등을 사용하여 기술할 수 있다. 기존의 소프트웨어(SNS, 검색, 메신저 등)와 같은 범주에 속하는 경우, 경쟁 소프트웨어의 사용자 Segmentation에 사용된 특성을 참조(검색을 통하여 마케팅 조사 자료들을 찾아보면 된다. NEXT Library에서 제공하는 ATLAS도 잘 활용하자.)하거나, 이를 기준으로 행위적 특성으로 기술할 수 있다. 아래 점검방법에서 설명한 문제들을 피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특성을 2가지 이상(예, 인구통계학적 특성 + 행위적 특성) 이용하여 정리하고 일관성이 있는지 점검하면 좋다. (특정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갖는 사용자의 행위적 특성이 유사한가?)

사용자의 기술을 Persona 수준으로 구체적인 수준까지 하는 경우 사용자의 실제 존재 여부에 대한 검증 및 사용자 조사 및 Usability Test 단계에서의 조사대상의 Recruiting에 도움이 된다.

예) eBay 사용의 Persona

Leon the Power Seller is a 46 year old male that lives in Fresno and runs a small motorcycle parts business. While he does maintain a small shop, almost all of his sales come from eBay, where he sells on average 400 items per month. He sells a wide range of motorcycle related items, but his most popular items are saddle bags for Harley Davidson's. He owns two big Harley's himself, and he also drives a 1993 Toyota Pickup. Leon is married and has two teenage sons.

■ 점검

기술된 사용자가 다음과 같은 특성을 만족하는지 점검한다.

- Homogeneity: 사용된 특성으로 구분된 사용자들은 동일한 Need를 갖는가?

사용자들이 너무 형식적으로 기술된 경우 특성을 사용하여 구분된 사용자들의 Needs가 너무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Usage Scenario가 어떤 사용자에게는 부적합할 수 있다. 특히, 인공통계학적 특성으로만 기술된 경우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 Accessibility: 사용된 특성들을 이용하여 실제 사용자의 구별이 가능한가?

기술된 사용자는 실제로 존재하고 현실적으로 구분이 가능하여야 이를 대상으로 사용자 조사 및 이후의 Marketing 활동을 진행할 수 있다. 심리적 특성, Needs 특성으로만 구분되는 경우 실제로 사용자를 구분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Usage Scenario

사용자의 문제와 해결방법을 기술한다.

■ 예

Microsoft BackOffice Server

Jim is a system administrator for Fieldtrip Insurance. Fieldtrip Insurance is a Medium-Sized Organization (MORG) that relies on BackOffice components to perform their day-to-day

operations. In order to ensure high availability of the server components, Jim wants to be able to install the BackOffice components across multiple servers. This is because, if access to a server is sluggish, or the more than one component is inaccessible, the productivity of the company decreases dramatically. Furthermore, while the BackOffice components are physically located across multiple servers, Jim would like to manage and update the various servers as a single unit for practical purposes.

Continue describing how Jim uses setup ...

사용자의 문제가 너무 많이 나열된 경우 기술에서의 중복 때문에 명확성을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Affinity Diagram(필요 시 학습자료 제공)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구조화를 한다. 과목의 기간을 고려하여 나무구조(하나의 핵심 문제에 집중)로 정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구조화 이후에도 사용자의 문제가 많은 경우는 Rating 방법(필요 시 학습자료 제공)을 이용하여 우선 순위를 설정하고 선택한다.

■ 점검

사용자 시나리오의 점검은 사용자 문제의 (User Profile에 기술된 사용자 측면에서) 중요성 및 Usage Scenario에 대한 Usability 측면에서 진행한다. 과목 범위에서 넘어가기 생략한다.

Feature buckets (categories)/주요 기능

Usage Scenario에서 사용된 기능들을 범주화하여 기술한다.

■ 예

모아보기 서비스의 기능

1. 대상 설정 기능

2. 화면 레이아웃 설정 기능

...

상세한 기능들의 기술은 아래 Feature Description에서 진행한다. 필요 시 두 항목을 합쳐서 기술한

다. 주의할 점은 Feature 단계에서는 기술적 Architecture가 아닌 Usability 측면에서 정의하여야 한다. Feature List와 분리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기능 요구사항 도출과정에서 Bucket별 할당 과정을 통하여 사용자 측면에서 필요 없는 기능, 중복되는 기능 등을 점검할 수 있다.

■ 점검

정의된 Feature Bucket 은 MECE(Mutually Exclusive Collectively Exhaustive) 특성을 만족하는지 점검한다. 위 항목의 Usage Scenario에서 사용자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Feature Bucket에서 정의된 Feature들 만으로 설명되어야 하고(Collectively Exhaustive), 각 Feature 간에는 중복이 없어야 한다. 중복성에 대한 점검은 Feature List를 각 Bucket에 할당하는 과정에서 2개 이상의 Bucket에 할당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Feature Bucket을 다시 점검하여야 한다.

Positioning/경쟁분석 (선택사항입니다)

기존의 소프트웨어 또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지 않는)방법보다 왜 좋은지를 기술한다.

<부록> 일반 지침

- 공유가 중요하다

기획서의 작성 목적은 구성원들간의 합의 사항을 공유할 수 있도록 문서화 할 수 있는 것인 것. 따라서 문서가 온라인 문서 등으로 공유가 가장 용이할 수 있는 수단, 형태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한다.

- 내용이 중요하다

문서 작성 과정에서 내용보다 형식, 형태에 지나치게 시간을 소요하지 않도록 간단한 편집 수단을 사용하도록 한다. 특히 PPT와 같은 형태는 그림 등을 그리거나 문장을 지나치게 압축하기 위하여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 간결하게 작성하자

기획서는 프로젝트 진행과정에서 필요 시 수시로 참조하여야 한다. 따라서, 분량이 많아지게 되면 다시 읽기가 어려워 진다. 따라서, 명확성에 문제가 없는 경우 최대한 간결하게 작성하도록 한다. 사용자 조사 등의 자세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는 경우 별도의 문서나 부록으로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용어를 통일하자

문서의 작성 후 사용된 용어에 대하여 구성원들이 이해가 다르게 되어있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일반적이지 않거나 협의 과정에서 논란이 있었던 경우 별도의 용어 정의 항목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